

글로벌 협력을 통한 IT산업 해외진출 방안

김 선 배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원장

I. 세계의 정보통신 동향

세계 경제는 2006년 상반기 이후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2007년 세계 경제는 2006년 보다는 소폭 둔화된 성장이 예상되며, 특히 인플레이션 압력에 따른 주요 선진국의 긴축적 통화정책으로 추가적인 경기 둔화 가능성도 존재한다.

(표) 2006-2007년 세계 경제 전망

	2005	2006	2007
세 계	4.9	5.1	4.9
미 국	3.2	3.4	2.9
유 로	1.3	2.0	1.3
일 본	2.6	2.7	2.1
중 국	10.2	10.0	10.0

※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2006.09)

그러나 IT가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년 높아지고 있으며, 세계적으로도 IT산업 진흥이 국가산업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전략적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를 포함하여 대만, 인도 등의 경우를 살펴보면 주식시장에서 적게는 20%이상 많게는 60%까지 차지하며 전체 주식시장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렇듯 IT분야의 중요성이 부각되면서 BRICs, 동남아, 중동, 중남미 등의 IT 新시장을 대상으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하고, 자국의 IT기술을 국제표준으로 이끌어 내기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세계 무역시장은 WTO, FTA 등을 통하여 자국산업에

대한 개방화·자유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각국은 자국산업의 보호와 해외진출 확대를 위하여 협상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등 국가간 무역에 따른 실익을 계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나라는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IT분야의 경쟁력을 기반으로 좀 더 유리한 협상을 이끌어 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결실을 맺을꺼라 사료된다.

II. 우리의 글로벌 IT협력

우리나라는 IT분야, 즉 반도체, 휴대폰, LCD 등 각 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보유하고 있고,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들의 해외진출 지원을 활발히 하며 해외 시장 개척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기업들이 해외시장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면도 있으나 정부의 다양한 국제협력 노력과 WTO, FTA 등 정보통신 통상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도 볼 수 있다.

WTO DDA(Doha Development Agenda) 통신서비스 협상을 계기로 통신 시장개방에 대한 다자 및 양자 차원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며, WTO 서비스 이사회 및 양자협약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협상을 이끌어 왔다. 또한 FTA 협상 과정에서 상대국의 시장개방 요구에 대한 국내시장의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국내 규제 제도를 개선하여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선진국 및 개도국 등 전략국가에 대한 협상전략을 지속적으로 수립하여 우리업체의 해외시장 진출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대처해 나갈 것이다.

최근 우리나라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아·태경제협력체(APEC),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아·태전기통신협의체(APT) 등 정보통신 관련 각종 국제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세계 정보통신 논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우리나라 IT산업 홍보 및 위상 제고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2005년부터 "World ICT Summit" 행사를 개최하여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중동, CIS 등 각 대륙별 IT협력 및 해외시장 확산의 거점이 될 수 있는 국가들이 대거 참여하여 명실 공히 IT분야의 다보스포럼으로 성장시키며 우리나라가 IT분야의 중심으로써의 기반을 마련·확립하는 등 우리 IT기술 및 서비스의 글로벌 표준을 위한 다양한 국제협력 활동을 전개해 나아가고 있다.

우리나라는 IT산업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하여 ITU를 비롯하여, APT, APEC, OECD, WSIS, WTO, World Bank 등 다양한 국제기구 활동을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주요 국제기구 활동을 살펴보면,

1. 국제전기통신연합(ITU)

우리나라는 1952년 1월 31일자로 회원국에 가입하여, 1989년 니스 전권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이사국에 선출된 이후, 2002년 모로코 마라케쉬 전권위원회에 이르기까지 4회 연속 이사국으로 진출하였으며, 지난 11월 터키에서 열린 전권위원회에서 이사국으로 선출되며 지속적으로 ITU의 주요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ITU 70개 회원국, 50개 회원사 등 총 800여명이 참가한 제4차 세계전기통신개발총회(WTDC-06: World Telecommunication Development Conference 2006)에서 우리나라의 정보통신 개발전략, 인터넷 다국어화, DMB, Wibro와 같은 신기술 도입경험 공유 등을 제안하여 참여회원국의 지지를 받았다.

또한,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제2단계 정보사회정상회의(WSIS)에서 한국을 디지털 기회지수(DOI: Digital Opportunity Index) 2년 연속 세계 1위로 공식발표하였다.

2. 아·태전기통신협의체(APT)

1979년 APT 창설시부터 정보통신부가 참여하였으며, KT(1982년), 데이콤(1984년), SK Telecom(1990년), 삼성전자(1998년), LG전자(1998년), 한국전자통신연구원(1999년), 파워콤(2001년), 쉐일 코리아(2004년) 등이 각각 협찬회원

로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이종순 전 정보통신부 국제협력관이 제7, 8대(1996년 2월 ~ 2002년 2월) 사무총장으로 당선되어 총장직을 수행한 바 있다. 한편, 2006년 7월 서울에서 제26차 APT 연구반 회의를 개최하여 60여명의 전문가의 참여로 지역내 정보통신 기술 및 산업발전에 대하여 협의하였다. 또한, 2006년 9월 몰디브에서 개최된 APT 관리위원회에서 한국은 APT 사업운용과 관련된 모든 가이드라인 및 재정 운용기준을 APT 웹을 통하여 회원국에 공개토록 하여, 투명한 사업운용의 기반을 마련하였다.

3. 아·태경제협력체(APEC) 정보통신전체회의(TEL)

APEC 정보통신실무그룹(TEL) 결성 초기부터 주도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는 우리나라는 2005년 4월 이후, 2년 임기의 의장직을 수행 중에 있으며, 제32차 TEL 회의는 2005년 9월 서울에서 개최하는 등 꾸준히 역내 IT인프라 발전 및 협력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2005년 11월 APEC 정상회의에서는 우리나라의 발전된 IT 현황을 알리는 IT전시관을 회의장에 설치하고, DMB를 시연하는 등 각국 정상 및 대표단의 관심이 집중되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

2006년 4월에는 캐나다 캘거리에서 개최된 제33차 TEL 회의에서 APEC TEL 활동의 효율화를 위해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기존 체제 개편 및 가이드라인 마련 등을 제안하여 회원체들의 많은 지지를 얻은 결과, 기존의 4개 운영그룹(자유화, 개발협력, 비즈니스원활화, 인적자원개발)에서 3개 운영그룹(자유화, ICT 개발, 보안 및 번영 운영그룹)으로 구성된 TEL 구조개편을 완료하였다. 또한 TEL 신규 프로젝트 제안 및 워크샵 개최 제안 가이드라인을 채택하고, 간사직 선임 가이드라인을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정보보호에 기술적, 제도적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우리나라는 새로 개편된 보안 및 번영 운영그룹 구성을 주도하였다.

4.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004년 OECD 규제정책회의(SGRP)시 한국의 규제개혁 모니터링 참여가 결정됨에 따라, 모니터링 대상국의 규제개혁 추진상황 및 '99년 국별심사시 OECD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OECD 규제개혁 Monitoring Exercise"가 2005년 하반기부터 1년여간의 일정으로 진행했다. 동 모니터링은 통신분야를 포함한 6개 분야(거시경제,

경쟁, 시장개방, 정부역량, 고등교육 등)의 규제개혁 이행상황에 대해 질문서 송부 및 현장 실사단 방문점검, 그리고 작업반회의시 상호검토(Peer Review) 등의 방법을 통해 점검하고, 2006년말 최종 규제개혁보고서를 발간하는 일정으로 추진했다.

2006년 5월 OECD 가입 10주년을 맞아 제20차 OECD WPISP(정보보호작업반: Working Party on Information Security and Privacy) 회의(5.15~17)를 서울에서 개최하였다. 아시아권에서는 처음으로 OECD WPISP 회의를 개최함으로써 OECD 및 각 회원국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였으며 한국의 정보보호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였다.

5. 세계은행(World Bank)

정보통신 분야에 있어서 세계은행과의 협력은 2001년 12월 우리나라가 정보격차 해소재단(DGF) 창립 이사국으로 참가하면서 본격화 되었다. 이에 2002년 11월 DGF-KTC(개도국 정보통신인력 훈련센터)를 설립하였고, 동년 12월에는 개도국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전문 컨설팅 지원을 목적으로 정보통신부 전문가 2인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2005년 1월과 7월에는 IBRD의 정보화자문서비스팀(IA)에 정보통신부의 ICT 전문가를 각각 1명씩 파견하여 개도국과의 정보격차해소와 세계은행과의 협력기반 마련 등에 있어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III. 우리나라의 IT 해외진출현황

1. 2006년 IT산업 수출입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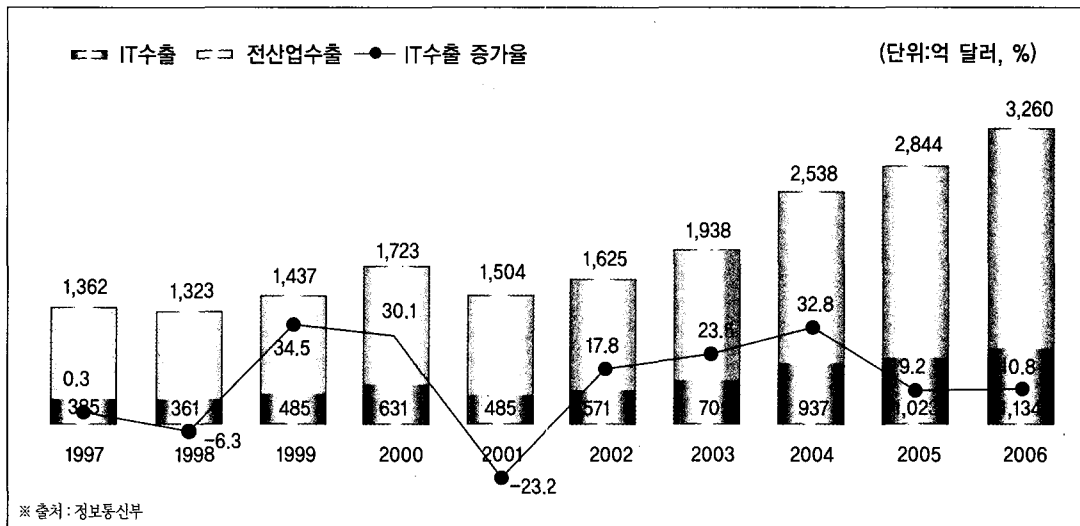
2006년 우리나라 IT산업 수출액은 전년 대비 10.8% 증가한 1,134억 달러를 기록하여 우리나라의 전체 산업에 대한 수출 중 34.8%의 비중을 차지했으며, 같은 기간 IT산업 수입액은 전년 대비 9.1% 증가한 588.7억 달러를 차지하며, 545.2억 달러의 무역수지를 기록했다.

〈표〉2006년 IT산업 및 전체산업 수출입 동향

구 분	IT산업		전체산업	
	05(1~12)	06(1~12)	05(1~12)	06(1~12)
수 출	1,023.3 (9.2)	1,134.0 (10.8)	2,844.2 (12.0)	3,259.8 (14.6)
수 입	539.5 (8.4)	588.7 (9.1)	2,612.4 (16.4)	3,093.3 (18.4)
수 지	483.8	545.2	231.8	166.5

※ 출처: 정보통신부 (금액단위: 억 달러, %: 전년 동기대비)

우리나라의 IT산업 수출구조를 살펴보면 해외생산 확대 및 가격하락에 기인하여 정보기기 수출이 감소하고, 단말기 가격하락과 경쟁우위 약화로 통신기기의 수출이 정체를 보인 반면, 이동통신 부분품, 디지털TV 부분품, 반도체·패널·범용 부품 등 고부가의 부분품 수출은 두자리수대 증가를 기록하며 총 수출이 1,134억 달러를 기록하였다. 이는 완



〈그림〉 최근 10년간 IT 수출 추이

제품에서 부분품·부품 중심으로 바뀐 것을 의미한다.

〈표〉 품목별 수출현황

구분	2005년			2006년		
	수출액	증가율	비중	수출액	증가율	비중
이동통신단말(부분품 포함)	25,821	7.0	25.2	25,401	-1.6	22.4
이동통신단말(제품)	19,545	0.7	19.1	17,414	-10.9	15.4
부분품	6,276	32.7	6.1	7,988	27.3	7.0
디지털 TV(부분품 포함)	6,151	6.4	6.0	6,780	10.2	6.0
디지털 TV(제품)	1,927	-8.2	1.9	1,452	-24.6	1.3
TV 부분품	4,224	14.7	4.1	5,328	26.1	4.7
셋탑박스	755	-26.5	0.7	655	-13.3	0.6
모니터	8,158	-13.4	8.0	6,792	-16.7	6.0
반도체	32,003	18.5	31.3	37,367	16.8	33.0
디스플레이패널	10,172	133.7	9.9	16,835	65.5	14.8
범용부품	4,840	10.5	4.7	5,926	22.5	5.2

※ 출처: 정보통신부

(금액단위: 억 달러)

또한 지난해 대중국 IT수출은 402.5억 달러를 기록(13.0% ↑)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재경신하며, 02년 이후 5년 연속 수출 1위국을 유지하였으며, 중남미, ASEAN 수출이 두 자리수대 고성장(52.5%, 21.0% ↑)을 기록하며, EU·미국시장 외 수출선 다변화가 진행되었다. 중국, EU, 미국에 집중되었던 우리의 IT시장이 전세계로 다변화 되고, 그 규모도 점차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국가별 수출입 현황

구분	2005년			2006년		
	수출액	증가율	비중	수출액	증가율	비중
중국(총공)	35,618	28.8	34.8	40,251	13.0	35.5
EU	18,564	13.6	18.1	18,759	1.0	16.5
미국	13,115	-22.3	12.8	12,504	-4.7	11.0
일본	7,629	5.0	7.5	9,416	23.4	8.3
ASEAN	9,973	-0.7	9.7	12,068	21.0	10.6
싱가포르	4,184	13.6	4.1	5,388	28.8	4.8
말레이시아	2,183	-7.0	2.1	2,425	11.1	2.1
중남미	4,234	30.3	4.1	6,456	52.5	5.7
멕시코	2,179	30.2	2.1	4,006	83.9	3.5
브라질	1,609	32.7	1.6	1,965	22.2	1.7

※ 출처: 정보통신부

(금액단위: 억 달러, %: 전년 동기대비)

2. 2007년 IT산업 전망

2007년 세계 경제 성장률은 06년 대비 소폭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과거 10년 평균성장률 4.1%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 등 선진국 경제는 소비둔화 가능성, 중국 등 개도국 경제는 상대적으로 견실한 성장률을 기록하며 세계 경제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7년 주요국 경제전망〉

(06년 → 07년(%))

국가	미국	중국	EU	일본
성장률	3.4 → 2.9	10.0 → 10.0	2.0 → 1.3	2.7 → 2.1

※ 출처: IMF

그러나 세계 IT시장은 06년과 비슷한 수준 유지가 예상(06년 4.7% → 07년 4.8%)되며, 차세대 운영체제 출시에 따른 PC 교체수요, SW 부문의 성장 등이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는 해외생산 확대 및 가격하락에 따라 정보기기는 수출이 감소하나, 이동통신단말기는 신규서비스를 지원하는 단말기 중심으로 증가하고, 디스플레이 패널과 반도체 등 부품이 전체 수출을 견인하며 전년대비 12.0% 성장한 1,270억 달러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글로벌 달러 약세 기조로 원화강세 및 경쟁 심화에 따른 주요 IT품목의 수출단가 하락 상황이 지속될 수 있는 대외여건이 상존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HSDPA 등 차세대 통신서비스 이용이 가능한 휴대전화, 윈도우비스타 출시에 따른 PC와 모니터 중심 교체수요는 국내 수출에 기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IT품목을 살펴보면 먼저 차세대 운영체제 출시에 따른 D램 수요 확대가 수출을 견인할 것으로 보인다. 2006년 364.5억 달러에서 14.1% 상승한 415.9억 달러로 예상되며, 가트너에 의하면 D램은 98.2%, 낸드플래시는 100.5%의 공급수요를 전망하였다. 다만 플래시의 공급과잉 우려가 상존한다.

〈2007년 반도체 성장 전망〉

구분	메모리반도체	D 램	낸드플래시	반도체 전체
성장률	10.1%	15.8%	10.6%	9.4%

※ 출처: Gartner

둘째, 휴대전화의 경우 HSDPA 등 신규서비스 지원 고성능, 고기능 폰 및 신규시장의 프리미엄 단말기 중심 수출 회복이 예상되며, 2006년 252.2억 달러에서 1.5% 성장한 255.9억 달러가 예상된다.

신흥시장에서도 Mid/High-End 단말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신흥시장에서 Low-End 단말 비중은 대수기준 연평균 16.7%, 매출기준 27.2%로 축소할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세계시장의 제한적 성장으로 수출 증가폭은

크지 않을것으로 전망된다.

※ 세계 휴대폰시장 성장률(Gartner) : (06) 17.1% ↑ → (07) 13.0% ↑

셋째, LCD분야는 2006년 마찬가지로 디지털방송의 본격화, 고화질 TV에 대한 소비자 욕구 증대로 TV용 패널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세를 지속하여 2006년 170.7억 달러에서 38.5% 증가한 236.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마지막으로 디지털TV 분야는 TV가격의 대중가 근접으로 수요가 증대되고, 해외 생산 본격화에 따라 현지거점 대상 부분품 중심으로 수출이 확대되어 2006년 70.8억 달러에서 9.4% 성장한 77.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LCD TV와 PDP TV간 경쟁 심화와 주요 브랜드 TV 업체들은 시장주도권 확보를 위해 가격인하 전략 구사, 디지털TV 제조가 용이해지며 중소기업들의 시장진입이 증가되며 수출 증가율은 제약적일 것으로 보인다.

IV. IT 해외진출 지원 및 글로벌 협력 강화

정부는 해외진출에 필요한 마케팅, 정보, 금융지원 및 정부차원의 대외협력 활동 강화 등 총체적인 해외진출 지원수단을 동원해서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해외진출을 극대화할 계획이며, 이와 관련 ① 수출시장 및 품목의 다변화 ②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한 해외마케팅활동 지원 ③ 해외진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및 홍보 ④ 전략국가 정보통신 인력 초청연수 등을 통한 해외진출 기반조성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1. 수출시장 및 품목의 다변화와 마케팅 활동 강화

참여정부 5년 동안(2003~2007), 수출 4,000억 달러, 무역수지 흑자 1,0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쟁 상대국보다 한 발 앞서 세계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핵심과제로 IT839전략을 마련하였다.

정부는 이동통신을 비롯한 초고속인터넷, 모바일 솔루션 및 콘텐츠 등 분야에서 IT신흥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정부간 협력채널 강화, 고위급 인사를 대표로 하는 민·관 합동 IT협력단 파견 및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국내 IT산업의 우수

성을 전 세계에 널리 홍보하고 세계시장 개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2007년도에는 일본, 미국의 경기회복과 신흥 BRICs국가의 성장으로 인해 주요 IT 수출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어 권역별, 시장단계별, 아이템별 특화를 통한 차별화된 해외시장개척 활동을 준비 중에 있다.

선진국과 개도국별로 현지 시장구매력, 시장특성을 고려한 전문화된 협력단을 파견함으로써 IT수출 활성화 및 수출 지역 다변화를 모색하고 IT839 신규서비스의 로드쇼 및 국제표준화를 위한 포럼 개최를 지원하여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2006년도에는 총 12개국을 서유럽 등의 선진 IT시장권과 동남아시아 등의 신흥 및 확대 IT시장권으로 나누어 IT협력단을 파견했다.

시장 특성에 알맞은 IT협력단 파견전략에 따라 선진시장에는 우리나라 우수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세계 유수의 선진 IT기업이 요구하는 제품요구에 부합되는 Matchmaking을 추진하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신흥 및 확대 IT시장권은 전문 분야 선정 또는 아이템을 통합 패키지화하여 IT협력단을 구성, 파견을 추진하는 등 맞춤형 전략으로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2. 해외진출 정보제공 및 홍보활동 강화

정보통신부에서는 국내 IT기업의 해외진출지원 및 해외투자유치를 위하여 1998년 12월부터 해외진출 및 투자유치 DB 구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시행 첫 해인 1999년에 www.itbizkorea.com 이라는 국·영문 홈페이지를 개설한 바 있다. 이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2003년부터는 기존에 제공되던 IT해외진출 정보를 대폭 확장하여 국내 IT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IT수출정보 데이터베이스(www.itx.or.kr)를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에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IT종합수출정보시스템에서는 IT수출통계 및 각종 통계 정보, 글로벌 IT 산업동향, 국가별 마케팅 정보, 바이어 정보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중소기업들의 해외진출 애로사항의 One-Stop 해결을 위해 지역별, 분야별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IT수출상담센터>의 설치하고, 중소기업 해외진출역량 평가시스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내 IT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05년도에 IT종합수출정보시스템의 대표 콘텐츠로 30개국을 대상으로 '국가별 IT핵심보고서'를 구축하여

IT현황, IT협력현황, 일반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다. 동 콘텐츠는 분기, 반기, 연도별로 업데이트되어 최신자료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십개의 서브-카테고리를 통합해 원-클릭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2007년 현재 65개 국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IT강국 KOREA의 국가 브랜드의 해외홍보를 위해 홍보 동영상, 격월간 IT전문지(IT KOREA Journal)등을 제작해 국내외의 주요처에 배부하고 있으며, 디지털 한류 육성 및 확산 사업을 추진하며 IT KOREA 홍보사업의 전략화 및 체계화를 도모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IT KOREA의 브랜드 홍보와 산업홍보를 병행하기 위한 홍보포털(DynamicITKorea.org)을 구축하여 우리나라의 주요IT정책 및 투자정보와 IT 시장현황 및 기업 등의 정보를 해외 정부와 기업을 대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실시간 IT Korea를 홍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있다.

3. 글로벌 IT 통상 협상력 강화

2001년도 11월에 시작된 WTO DDA(도하개발어젠다) 협상은 참여국간의 이견으로 한 때 협상이 좌초될 위기를 겪기도 했으나, 2004년 8월 1일 협상의 기본골격에 대한 합의가 채택됨에 따라 협상 완료시한을 2005년 12월 홍콩에서 개최하는 제6차 WTO 각료회의의시까지 연장하였다.

2005년도 7월 이후 WTO 회원국들은 각국이 제출한 수정양허안의 수준을 평가하고 주요 관심대상국과의 양자협상을 통해 시장개방 확대를 모색하게 되었으나, 2005년도 12월까지도 농산물, 상품 모델리티 등 핵심분야에서 회원국간의 합의가 도출되지 않아 협상은 다시금 위기를 맞게 되었으나, 이러한 위기감은 12월에 개최된 WTO 제6차 각료회의에서 협상 종료시한을 다시금 1년 더 연장하고 상품 모델리티에 대한 합의시한을 정하는 등 협상의 성공적 타결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2006년도 1월과 2월에는 통신서비스, 컴퓨터서비스 등의 분야에서 이러한 복수국간 협상의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협상이 진행되었으며 이에 따라 각 분야별 복수국간 양허요구서를 합의 도출하고 중국, 인도, 브라질 등 주요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동 분야에서의 양허 확대를 집단적으로 요구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통신서비스, 컴퓨터서비스 분야에서 양허요구국의 일원으로 복수국간 협상에 참여하였으며 함께 참여한 미국, EC, 캐나다, 일본, 호주 등의 국가들과 함께

WTO DDA 협상의 진전 및 서비스 무역 자유화 확대를 위해 노력하였다.

WTO로 대표되는 다자체제하에서도 체약국간의 경제적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한 지역무역협정이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여 우리나라도 안정적인 해외 시장 확보 및 개방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시다발적인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 체결을 추진하고 있다. 칠레('04. 4. 1 발효)를 시작으로 싱가포르('06. 3. 2 발효), EFTA 국가들(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06. 9월 발효예정)과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여 협상을 타결하였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경우 협정 이행을 위해 양국 정보통신관련 부처 간 전기통신표준위원회(Committee on Telecommunications Standards)를 구성하고, 2006년 5월 제1차 회의를 칠레에서 개최하였다. 양국은 전기통신장비 인증제도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인정협정(MRA: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체결을 위해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2005년도부터 진행된 한-아세안 FTA의 경우, 2006년 5월 상품협상을 실질적으로 타결하였고 현재 서비스 및 투자 협상이 진행 중이며, 한-캐나다 FTA의 경우 2007년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2006년 상반기에는 그동안 사전공동연구 및 예비협의를 통해 FTA 추진 타당성을 검토했던 미국, 인도, 멕시코와 FTA 본협상을 개시하였다. 또한 EU 및 MERCOSUR국가와 예비협의를 및 사전공동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IT상품분야는 정보기술협정(ITA)체결로 인해 상당부분 무관세화가 이루어진 상태이며, 따라서 주된 관심사는 FTA 체결국간 통신서비스 시장개방, 통신장비에 대한 상호인정협정 체결과 IT 전문인력에 대한 자격 상호인정 등이 될 전망이다. 우리 정부는 정보통신분야 시장진출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FTA 협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참여정부 통상전략의 궁극적인 지향점으로 평가받는 한-미 FTA가 2006년도 2월 양국의 협상개시선언 이후, 2006년도 6월 미국 워싱턴에서 제1차 협상을 시작하였다. 정부는 동 협상의 산업·경제적 파급효과를 고려하여 산·학·연·관의 전문가들로 한-미 FTA 추진체계를 새롭게 구축하고 협상이슈 분석, 협상전략 수립 등 효과적인 협상대응 및 협상성과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4. 글로벌 지역협력 기반 확충

우리나라는 국제무대에서 IT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더욱 강화하고, 우리의 IT 신기술을 글로벌 시장에 진출시키기 위하여 67개국과 184회의 장관 면담을 실시하고 31개국과 34건의 IT국제협력 MOU를 체결하는 등 다양한 국제협력 활동을 전개해 왔다.

또한, 정부간 IT외교를 위해 2003년 이후 IT 장·차관, 국제기구 고위관계자, 글로벌 IT 기업 CEO 등과 184회의 장·차관 면담을 통해 한국 IT의 현황과 미래비전을 소개함으로써 첨단 IT기술 국가로서의 국가이미지 제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실질적인 IT협력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영국, 몽골, 아랍에미리트, 우즈베키스탄 등 31개 국가와 34건의 MOU를 체결하였다.

정부간 정보통신정책 정보를 공유하고, WiBro, DMB 등 우리의 선진 IT기술을 소개하며, 기술발전에 따른 정책대안 수립을 위한 정보통신협력위원회를 영국, 러시아, 포르투갈 등 4개국과 실시하였다.

세계시장의 지역화 및 블록화에 따라 지역별 다자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긴밀한 협력관계가 필요한 3개 협력체와 다자간 IT협력을 하였다. 우선 동북아 3국 IT장관이 참석하는 제4차 「한·중·일 IT장관회의」를 2006년 3월 중국 샤먼에서 개최하여 공개 S/W 공동개발 외 5개 의제에 대하여 협력하기로 하였다. 2006년 9월 브루나이 반다르세리 베가완에서 개최된 제1차 「ASEAN+Korea IT장관회의」에 참석하여 우리의 선진 IT기술을 소개하고 아시아의 발전을 위해 우리가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또한 한국의 IT기술과 호주·뉴질랜드의 마케팅 능력을 결합하여 세계 시장에 공동으로 진출하기 위한 제3차 「한·호·뉴 Broadband Summit」를 2006년 12월 호주 애들레이드에서 개최하였으며,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Digital Contents분야에서 3국의 공동협력방안에 대해 논의되었다.

한편, 세계 각국을 직접 찾아다니는 IT방문 외교활동과 아울러 주한 외교사절 및 주한외국경제인을 대상으로 한 IT외교활동도 활발히 전개하였다. 주한 중남미 대사 간담회(05.7월), 주한아프리카대사 간담회(06.2월), 주한 중동대사 간담회(06.2월) 등 주한 외교사절단을 대상으로 IT외교활동을 펼쳐 우리나라의 우수한 WiBro·DMB 등 IT 신기술을 소개하였고, 주한 유럽상공인을 대상으로 IT협력에 대한 협력약정(MOU)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협력관계의 형성과 외연확대를 통해 통신 서비스산업 및 제조업 등 국내 IT산업의 해외수출 및 투자를 촉진하고 우리기업의 국제 경쟁력 제고와 IT리더로서의 우리나라 이미지의 제고 등 IT의 내실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V. 맺음말

세계 경제는 IT발전 성장과 함께 급변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대의 흐름을 함께하지 못하면 뒤처질 수밖에 없다. 이제 세계는 Connect화 되어가고 있으며 국가간, 기업간의 상호 협력을 요구하고 있다.

소니와 에릭슨은 휴대폰 사업분야의 소니에릭슨을 설립하여, 세계 3위의 삼성전자를 위협하고 있으며, 대만은 우리나라의 LCD시장을 위협하는 등 우리의 IT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이제 글로벌 협력은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필수요건이 되었으며, 우리 또한 글로벌 협력을 위한 끈임없는 노력을 펼쳐 나아가야 한다.

우리나라의 DMB와 WiBro 등 IT839 핵심전략 품목은 우리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동력이다. 이를 국제기구와 정부간 IT협력을 통하여 국제표준화 및 시장선점을 추진하여, 향후 우리 IT기업의 진출 기반으로 삼아야 한다.

지난 1월 5일, 정보화촉진법 개정안의 발효에 따라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ICA)와 소프트웨어진흥원의 해외IT지원센터가 통합되어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KIICA)로 출범되었다. 이는 정보통신부와 산업체의 요구에 의해 IT분야의 국제협력을 통한 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하여 설립된 것이며, 해외시장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의 빠른 걸음이기도 하다.

약 령



김 선 배

- 1973년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1991년 美 뉴욕대 경영대학원 졸업 (MBA)
- 2006년 건국대 컴퓨터정보통신공학 박사 학위 취득
- 1996년 포항공대 기술혁신최고경영자과정 수료 (PAMTIP)
- 1999년 KAIST 최고정보경영자과정 수료 (AIM)
- 2001년 서울공대 최고산업전략과정 수료 (AIP)
- 2002년 서울상대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AMP)
- 2002년 KAIST 최고텔레콤경영자과정 수료 (ATM)
- 2004년 고려대 최고위인론과정 수료
- 1975년 ~ 1977년 한국외환은행 외

- 1978년 ~ 1986년 현대건설 기획관리실, 바레인지점/알코바지점 등 국제금융 경리, 현지법인관리 차장
- 1986년 ~ 1993년 현대증권 국제부장, 뉴욕사무소장
- 1993년 ~ 1995년 현대정보기술 관리본부 재정담당 이사대우
- 1996년 ~ 1998년 현대정보기술 기획실장 겸 금융사업본부장(이사·상무)
- 1999년 ~ 2000년 현대정보기술 경영지원본부장 (상무)
- 2000년 ~ 2001년 현대정보기술 COO (전무)
- 2001년 현대정보기술 전무 대표이사(CEO)
- 2002년 ~ 2004년 현대정보기술 사장 대표이사(CEO)
- 2005년 ~ 2007년 한국정보통신수출진흥센터 원장
- 2007년 ~ 현재 정보통신국제협력진흥원 원장